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 경북 1인가구 비중, 지속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을 전망
- 청년층 1인가구, 경북 1인가구 증가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타 시·도 유입은 수도권, 대구, 동남권 순
- 1인가구 전환 시 “아파트 →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거주형태 변화 커
- ‘본인직장’ 사유로 1인가구 된 청년층 가장 많아
- 1인가구 청년층이 2인 이상 가구 청년층에 비해 취업률 높아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가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성헌)은 경상북도의 1인가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계데이터 대구센터(data.kostat.go.kr)에서 일반이용자 활용 가능

특히 이번 분석은 2021년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1인가구 가구원을 2016년과 연계하여, 1인가구 증가 현상 및 주요 특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1년 경북의 1인가구 비중은 36.0%로 전국평균(33.4%)보다 높으며, 2050년에는 41.9%까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전국평균(39.6%)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 비중은 청년층*이 '16년 13.9%에서 '21년 19.1%로, 증가율로 보면 지난 5년 간 37.7% 증가하여 중장년층*(+21.5%)과 노년층*(+8.2%) 증가율보다 높았다.

* 청년층: 15~39세, 중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가구통계등록부를 연계한 결과, '21년 청년층 1인가구의 5년 전('16년) 거주지가 타 시·도인 비중은 47.8%였으며, 수도권*, 대구, 동남권*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동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5년 전('16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21년)로 전환된 청년층의 주된 거쳐 형태는 '아파트'(54.4%^{'16년})에서 '다가구 단독주택'(45.2%^{'21년})으로 바뀌어, 1인가구 전환 시 거쳐 형태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1인가구 사유는 '본인직장'(53.8%), '본인학업'(20.5%), '본인독립'(19.2%)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4세 이하에서 '본인학업', 25세 이상에서 '본인직장'이 가장 높았다.

'20년 청년층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92.9%)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배우자있음'과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35~39세에서 '배우자있음' 14.1%, '이혼' 6.7%로 나타났다.

'20년 1인가구 청년층의 취업률은 69.8%로 2인 이상 가구 청년층(49.6%)에 비해 높았으며, 30~34세의 취업률(8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1인가구를 다각도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경북의 1인가구 지원 대상 선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동훈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심경보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김동은 (053-609-6656)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2023. 4.



동북지방통계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경상북도 1인가구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 인구·가구통계등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1인가구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한 자료임

□ 유의사항

○ 용어 정의

- 1인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 자료처리 기준, 일반가구* 중 가구원이 1인인 가구를 1인가구로 정의
 -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연령계층: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 거주지 변화: 광역권 및 시·도 단위의 거주지 변화

○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자료명	기준시점	분석 항목	비고
인구주택총조사(전수)	'21. 11. 1.	1인가구 현황	
인구주택총조사(표본)	'20. 11. 1.	1인가구 특성(1인가구 사유, 혼인상태, 취업)	
인구·가구통계등록부	'16. 11. 1., '21. 11. 1.	1인가구 거주지 및 거주형태 변화	
장래가구추계	'22. ~ '50. (매년 7.1.)	1인가구 전망(2020년 기준 추계)	

○ 종단면 분석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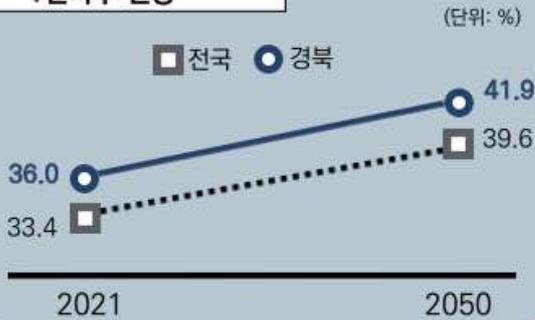
- 2021년 기준 5년 전('16년) 국내 거주지가 연계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용에 주의 바람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예정임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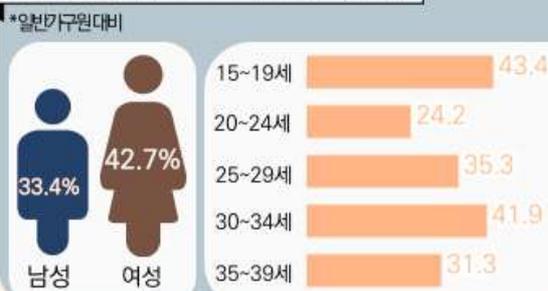
1인가구 전망



연령계층별 1인가구 비중* 변화



청년층성연령별 1인가구비중* 증가율(16,21)



청년층 1인가구 거주지 변화



1인가구로 전환된 청년층 거쳐형태 변화



청년층 1인가구 사유



청년층 1인가구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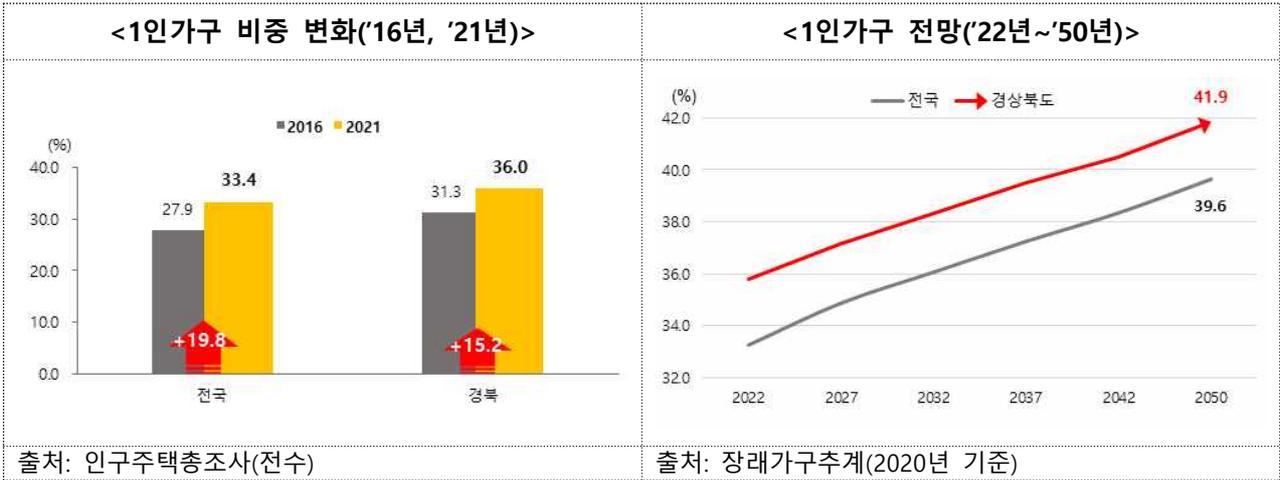
청년층 1인가구 취업



I. 경북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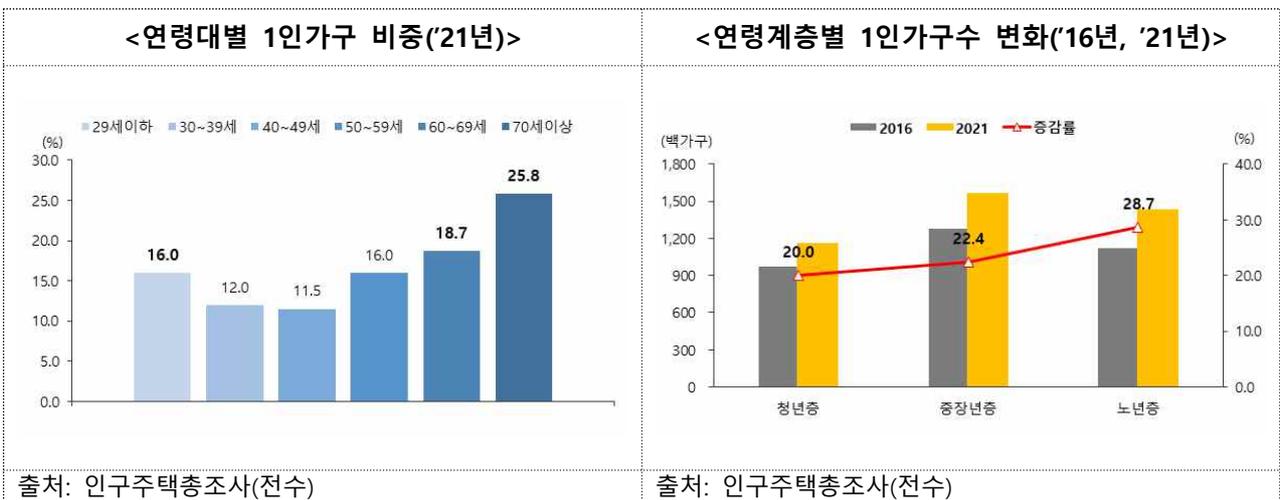
□ 경북 1인가구 전망

- 2021년 경북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 대비}은 36.0%으로 전국 평균^{33.4%}을 상회
- 2050년 경북 1인가구 비중은 41.9%로 전국평균^{39.6%}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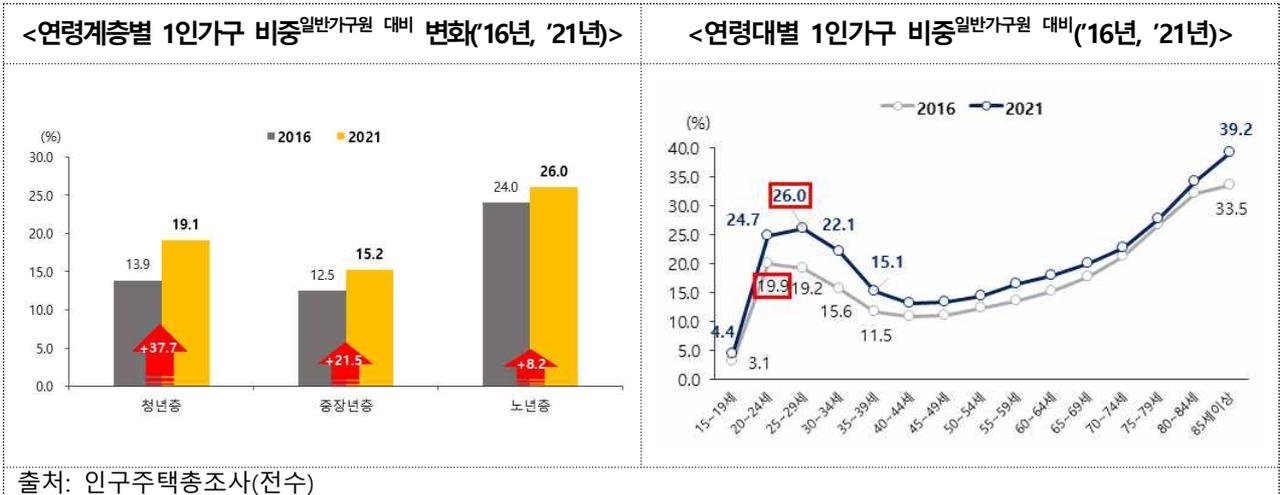
- 2021년 연령대별 1인가구는 70세 이상(25.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 다음으로 60~69세(18.7%), 29세 이하(16.0%), 50~59세(16.0%) 등의 순
 - 2016년 대비 1인가구수 증가율은 노년층(+28.7%)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22.4%), 청년층(+20.0%) 순
- * 청년층: 15~39세, 중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II. 경북 청년층 1인가구 증가

□ 연령별 1인가구 비중

- 5년 간(2016~2021년)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원 대비}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37.7%)에서 가장 크게 증가
- 청년층 중에서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원 대비}이 가장 큰 연령대는 '16년 20~24세(19.9%)에서 '21년 25~29세(26.0%)로 변동됨



□ 청년층 성·연령대별 1인가구 증가

- (성별) 5년 간(2016~2021년) 청년층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원 대비}은 여성(+42.7%)이 남성(+33.4%)보다 크게 증가
- (연령대별) 5년 간(2016~2021년) 청년층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원 대비} 증가율은 15~19세(+43.4%), 30~34세(+41.9%), 25~29세(+35.3%) 등의 순

<경북 청년층 성·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일반가구원 대비}('16년, '21년)>

(단위: %)

연령대별	2016년			2021년			증감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청년층	13.9	16.8	10.6	19.1	22.5	15.1	37.7	33.4	42.7
15~19	3.1	3.1	3.0	4.4	4.5	4.2	43.4	45.8	40.7
20~24	19.9	21.2	18.5	24.7	24.4	25.1	24.2	15.1	35.1
25~29	19.2	23.1	14.6	26.0	29.1	22.0	35.3	26.2	50.1
30~34	15.6	20.5	10.2	22.1	28.5	14.5	41.9	39.0	41.5
35~39	11.5	15.3	7.5	15.1	20.3	9.6	31.3	33.3	27.4

출처: 인구주택총조사(전수)

III. 경북 청년층 1인가구 변화 분석¹⁾

□ 청년층 1인가구 거주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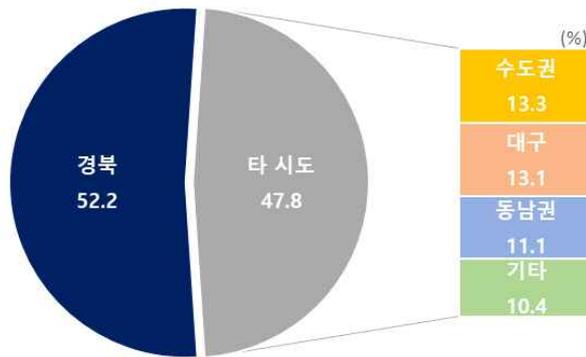
2021년 기준 경북 청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도 단위 거주지 변화 분석

- '21년 기준 경북의 청년층 1인가구의 5년 전('16년) 거주지가 타 시·도 인 가구의 비중은 47.8%
- 연령대별로는 15~19세(73.4%), 20~24세(67.7%)에서 타 시·도 비중이 높음
- 5년 전 거주지로는 수도권*이 대구보다 높음
 - 수도권(13.3%)-대구(13.1%)-동남권** (11.1%) 순이며, 15~20세, 20~24세 연령대에서 수도권이 대구보다 높음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동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1년 경북 청년층 1인가구의 5년 전 거주지>



출처: 인구·가구통계등록부

<'21년 경북 청년층 1인가구의 5년 전 거주지>

(단위: %)

연령대별 ('21년 기준)	'16년 거주지					
	경북	합계	타 시·도			
			대구	수도권	동남권	기타
청년층	52.2	47.8	13.1	13.3	11.1	10.4
15-19	26.6	73.4	4.8	31.9	16.7	20.0
20-24	32.3	67.7	10.6	23.2	16.4	17.6
25-29	50.1	49.9	17.7	10.5	12.1	9.6
30-34	60.4	39.6	14.3	9.2	9.0	7.1
35-39	70.3	29.7	10.0	7.7	6.2	5.7

출처: 인구·가구통계등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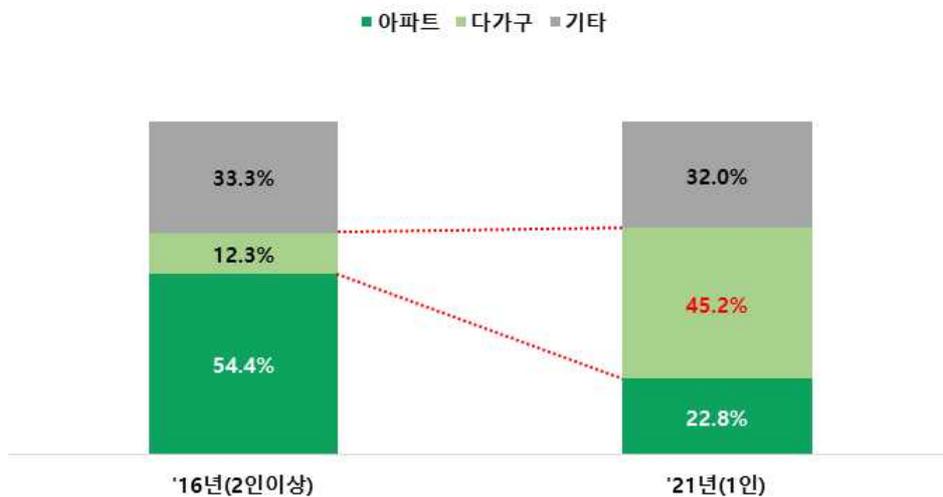
1) 2021년 청년층 1인가구를 기준으로 2016년의 개개인을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임

□ 청년층 1인가구 거처형태 변화

2021년 기준 경북의 청년층 1인가구 중 2016년에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거처형태 변화 분석

- '21년 기준 1인가구로 전환된 청년층 가구의 거처형태는 아파트 비중이 감소하고,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거처형태가 크게 증가
- '16년 2인 이상 가구의 거처형태는 아파트 비중(54.4%)이 가장 높았으나, 1인가구로 전환된 '21년에는 다가구 단독주택의 비중(45.2%)이 가장 높음

<경북 1인가구로 전환된 청년층의 거처형태 변화('16년, '21년)>



출처: 인구.가구통계등록부

- 연령대별로는 15~34세에서 다가구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35~39세에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음
- 20~24세 연령대 이후 다가구 단독주택은 감소하여 35~39세에 29.3%인 반면, 아파트는 20~24세 연령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35~39세에 38.7%까지 증가

<경북 1인가구로 전환된 청년층의 거처형태 변화('16년, '21년)>

(단위: %)

연령대별 (2년 기준)	'16년 2인 이상 가구							'21년 1인 가구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청년층	100.0	16.2	12.3	4.7	54.4	8.7	3.6	100.0	5.0	45.2	15.5	22.8	3.7	10.1
15-19	100.0	11.5	8.6	3.8	63.3	9.4	2.5	100.0	2.6	59.3	23.0	9.4	1.3	5.1
20-24	100.0	12.2	9.3	4.1	62.6	8.8	3.2	100.0	2.3	59.7	21.2	8.7	2.0	6.9
25-29	100.0	16.7	12.6	4.8	53.5	8.5	3.8	100.0	5.1	44.5	14.0	22.5	4.5	11.4
30-34	100.0	19.3	14.4	5.1	48.6	8.6	4.0	100.0	6.8	35.4	11.4	33.3	4.8	11.8
35-39	100.0	19.7	15.6	5.1	46.3	8.9	3.6	100.0	8.3	29.3	10.6	38.7	4.7	10.5

출처: 인구.가구통계등록부

IV.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특성

□ 청년층 1인가구 사유

- '20년 경북 청년층 1인가구 사유는 **본인직장(53.8%)**이 가장 많이 차지
 - 그 다음으로 본인학업(20.5%), 본인독립(19.2%), 가족사유(4.6%) 등의 순
- (성별) 남성은 본인직장 사유가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본인학업과 본인독립 사유가 남성보다 높음
 - 남성은 본인직장(57.0%)-본인독립(18.3%)-본인학업(18.2%) 등의 순
 - 여성은 본인직장(48.3%)-본인학업(24.3%)-본인독립(20.9%) 등의 순
- (연령대별) 24세 이하는 본인학업 사유가 가장 높았으나, 25세 이상은 본인직장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4세 이하 본인학업 비중은 20세 미만 80.6%, 20~24세 51.1% 차지
 - 25세 이상 본인직장 비중은 25~29세 66.4%, 30~34세 69.3%, 35~39세 61.2% 차지
 - 본인독립 사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져, 35~39세의 경우 28.9%까지 상승

<경북 청년층 1인가구 사유('20년)>

(단위: %)

성·연령대별	1인가구 사유							
	합계	본인직장	본인학업	본인독립	본인건강	가족사유	가족사별	기타
청년층	100.0	53.8	20.5	19.2	0.2	4.6	1.3	0.4
남성	100.0	57.0	18.2	18.3	0.2	4.4	1.5	0.4
여성	100.0	48.3	24.3	20.9	0.2	4.9	1.1	0.3
20세미만	100.0	15.5	80.6	-	-	3.5	0.4	-
20~24	100.0	30.3	51.1	12.3	-	4.8	1.2	0.2
25~29	100.0	66.4	9.0	19.7	-	3.6	1.0	0.3
30~34	100.0	69.3	1.1	23.1	0.4	4.5	1.4	0.4
35~39	100.0	61.2	0.2	28.9	0.7	6.1	2.2	0.7

출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 청년층 1인가구 혼인상태

- '20년 경북 청년층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92.9%)이 가장 많이 차지 - 그 다음으로 배우자있음 5.0%, 이혼 2.0%, 사별 0.1% 순
- (성별) 남성 청년층 1인가구가 미혼(93.3%) 비중이 여성보다 컸으며, 여성 청년층 1인가구는 이혼(2.8%) 비중이 남성보다 큼
- (연령대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있음·이혼 증가하였고, 특히 35~39세에서 배우자있음 14.1%, 이혼 6.7%로 나타남

<경북 청년층 1인가구 혼인상태('20년)>

(단위: %)

연령대별	합계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청년층	100.0	92.9	5.0	0.1	2.0
남성	100.0	93.3	5.1	0.0	1.6
여성	100.0	92.4	4.7	0.1	2.8
20세미만	100.0	100.0	-	-	-
20~24	100.0	99.5	0.3	-	0.2
25~29	100.0	97.5	1.9	0.0	0.6
30~34	100.0	90.0	7.6	0.1	2.3
35~39	100.0	78.9	14.1	0.3	6.7

출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 청년층 1인가구 취업

- '20년 경북 1인가구 청년층 취업률은 69.8%로, 2인 이상 가구 청년층 취업률(49.6%)보다 높음
- '20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30~34세 취업률(87.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5~39세(85.5%), 25~29세(80.5%) 등의 순

<청년층 취업률¹⁾(1인가구²⁾, 2인 이상 가구²⁾>

연령대별	(단위: %)	
	1인가구 가구원	2인 이상 가구 가구원
청년층	69.8	49.6
15~19	26.3	4.0
20~24	41.7	32.2
25~29	80.5	63.9
30~34	87.3	70.7
35~39	85.5	72.6

<연령대별 취업률(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출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주 1) 취업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2) 1인가구: 일반가구 대상, 2인 이상 가구: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대상